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ことわざ

鄭 芝淑・飯田 秀敏

1. はじめに

日本では現在2種類の韓国語検定試験が実施されている。1つは世界的規模で実施される「韓国語能力試験」であり、もう1つは日本の韓国語・朝鮮語学習者を対象として行われている「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¹である。いずれの検定試験においてもことわざが出題素材として位置付けられており、毎回数件のことわざが出題されている。

「韓国語能力試験」に出題されたことわざについては、鄭芝淑(2005, 2007)がすでに分析を行った。本稿の目的はこれと同様の観点から「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におけることわざの出題状況を分析することにある。特に、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では、出題項目を級別に具体的に公表する方針を採っており、ことわざに関しても出題リストを公表している²ので、その意義に注目しながら分析することにする。

2.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は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が日本各地で実施する検定試験で、1993年に第1回が行われて以来、年に2回ずつこれまで28回実施されてきた(1998年は秋だけ実施)。「韓国語能力試験」よりも歴史が古く、日本における韓国語・朝鮮語教育の普及・推進に大きな貢献をしてきた。全国15の主要都市会場と約80ヶ所の準会場で実施されている。「1級」「2級」「準2級」「3級」「4級」「5級」の6段階のレベルを区分して実施されているが、²「韓国語能力試験」とは逆に、「1級」が最もレベルが高い。

¹ 正式の名称は「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と表記されているが、煩雑さを避けるため「ハングル」を括弧に入れずに表記することにする。

² 第25回(2005年秋)までは「準1級」が設けられていた。

鄭 芝淑・飯田秀敏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のホームページ(<http://www.hangul.or.jp>)によれば、第28回(2007年春)の実施状況は次の表1の通りである。

表1:受験者数・合格者数・合格率(第28回)³

レベル	出願者(人)	受験者(人)	合格者(人)	合格率	累計出願者
1級	157	147	16	10.8%	2,006
2級	733	664	56	8.4%	10,158
準2級	1,617	1,434	147	10.2%	20,753
3級	2,882	2,554	793	31.0%	36,498
4級	3,764	3,340	2,459	73.6%	41,962
5級	3,050	2,728	2,294	84.0%	35,275
合計	12,203	10,867	5,765	53.0%	147,595

3.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とことわざ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特色は、級別の出題基準が非常に具体的に公開されていることである。かつては各級の基準を一般的にしか記述していなかったが、2006年以降、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編(2006a, b)などにより、発音、語彙、表現、文法項目などに関して各級の出題基準を「レベルの目安」として具体的に定めている。

「韓国語能力試験」と同様、ことわざを出題素材とすることが明記されているが、「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出題基準のうちことわざに関する記述を抜粋すると次のようになっている。⁴

- 3級: 単語の範囲にとどまらず、連語など組み合わせとして用いられる表現や、使用頻度の高い慣用句、ことわざなども理解し、使用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
- 準2級: 数多くの慣用句に加えて、比較的容易なことわざなどについても理解し、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
- 2級: 連語、慣用句はもちろん、ことわざや頻度の高い四字熟語についても理解し、使用できる。
- 1級: 連語や慣用句、四字熟語やことわざについても豊富な知識と運用力を持ち合わせており、豊かな表現が可能である。

³ 累計出願者(第1回～第28回)には、第25回までの準1級出願者943名も含まれる。

⁴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編(2006a)pp. 9-10を参照。

4. 分析資料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でことわざがどのように出題されているかを分析するための資料として、過去5年間(第18回～27回)の問題を使うことにした。ただし、第21回については問題を入手できなかったため分析対象から除外した。

調査資料に現れた各回各級ごとの異なりことわざの件数を示すと次の表2の通りである。

表2: 調査資料に現れた異なりことわざ件数⁵

	1級	準1級	2級	準2級	3級	4級	5級	合計
第18回	6	11	2	0	0	0	0	19
第19回	12	3	0	0	0	0	0	15
第20回	1	2	1	0	0	0	0	4
第22回	2	2	7	0	0	0	0	11
第23回	1	2	2	0	0	0	0	5
第24回	2	3	1	0	0	0	0	6
第25回	4	3	1	1	0	0	0	9
第26回	5	—	10	1	1	0	0	17
第27回	12	—	4	4	0	0	0	20
合計	45	26	28	6	1	0	0	106

素材とされていることわざは106件であるが、1つの問題に複数のことわざが表れるケースがあり、何らかの形でことわざが解答に関する問題の数は69問である。実施回数ごとにばらつきがあるが、平均して毎回約8問がことわざに係わる問題であり、約12件のことわざが素材として用いられていることになる。出題基準によれば3級以上でことわざの知識を問うことになっているが、出題例は2級以上に偏っている。3級での出題例は第26回の1例だけであり、準2級でも出題基準が整えられてから(第26回以降)出題されるようになっており、それ以前には第15回の1例しかない。言語素材としてのことわざの位置づけを考えれば当然の結果であろう。

5. 問題の種類

第18回から第27回までの試験に出題された何らかの形でことわざが関係する問題69問を類型別に分類してみよう。類型区分は鄭芝淑(2005)が「韓国語能力試験」の問題

⁵ 各回各級の数値は異なりことわざ件数を表すが、各級および各回の合計欄の数値は、それぞれの単純な和であり、必ずしも異なりことわざ件数を表すものではない。つまり、同じ回の異なる級で同じことわざが出題素材になっている場合、あるいは同じ級の異なる回に同じことわざが出題されている場合、それぞれ1件と数えてある。調査資料全体の異なりことわざ件数は表4に示すように83件である。

を分類したのと同様、大きくタイプ A, タイプ B, タイプ C に区分する。

タイプA: 与えられた意味・用法に適することわざを問う問題

タイプB: ことわざを与えてその意味・用法を問う問題

タイプC: 解答を得るために間接的にことわざの知識が必要である問題

出題された69問の問題を以上の類型別に分けて見ると、タイプAが42問(60.9%)、タイプBが12問(17.4%)、タイプCが15問(21.7%)となっている。また、出題領域別に見ると、筆記問題が41問(59.4%)、聞き取り問題が28問(40.6%)のようになっている。

以下、出題例を示しながら、各タイプの下位区分を見ることにする。下位区分についても鄭芝淑(2005)の区分法に準じるが、「韓国語能力試験」にないタイプを新たにいくつか設けることになる。

タイプA: 与えられた意味・用法に適することわざを問う問題(42)⁶

タイプA1: 穴埋め形式で文脈に適することわざを問う問題(多肢選択式)(18)

タイプ A1はすべてのタイプの中で最も出題例の多いタイプである。「韓国語能力試験」でもこのタイプの出題が最も多かった。問題の作りやすいことにもよるであろうが、ことわざを理解するにはそれが使われる文脈が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押さえた出題形式である。

第 22 回 2 級【筆記】第 19 問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1)-5)의 ()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①-④에서 하나 고르시오. ()

4) ㄱ: 선생님,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자를 못 따라갑니다.

ㄴ: 괜찮아. ()

①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이다.

② 가물에 콩나기라잖아.

③ 얇은 내도 깊게 건너야지.

④ 첫술에 배 부르지 않는 법이다.⁷

⁶ タイプの後の数字は出題数を表す。以下同じ。

⁷ 白抜き数字の選択肢は正答を表す。以下同じ。

タイプA2: 穴埋め形式で文脈に適することわざを問う問題(記述式)(0)

このタイプは調査資料の中には見られなかった。

タイプA3: 与えられた意味に適することわざを問う問題(0)

このタイプも調査資料の中には見られなかった。

タイプA4: 与えられた文章の内容に合うことわざを問う問題(0)

このタイプも調査資料の中には見られなかった。

タイプA5: 音声で与えられた話や対話に合うことわざを問う問題(6)

タイプA4と同じ形式であるが、聞き取り問題として出題されたものである。

第26回2級【聞き取り】第2問

대화를 듣고 마지막 남자의 말로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남 : 이 옷 싸다. 살까?

여 : 보기에는 좋지만 이런 싼 물건은 잘해야 두세번 입으면 끝이야.

남 : ()

- ①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건가?
- ② 옷이 날개라는 건가?
- ③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건가?
- ④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건가?

タイプA6: 日本のことわざを与え、それに相当する韓国のことわざを問う問題(記述式)(4)

これは「韓国語能力試験」には見られなかったタイプである。

第18回2級【筆記】第8問

8 다음 문장의 밑줄 (_____) 그은 부분을 한국 조선어로 번역하십시오.

2) 泥縄になる前に 1日も早く対策を立てなくてはなりません。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タイプA7: 韓国のことわざを聞かせ日本語に訳する形式(14)

これも、「韓国語能力試験」に見られない形式である。

第18回2級【聞き取り】第4問

4) 다음은 짧은 문장을 듣고 그 뜻을 일본어로 쓰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다섯 문제입니다. 보통 속도로 각각 2 번씩 읽겠습니다. 답을 쓰는 시간은 50 초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 가는 말이 고약야 오는 말이 곱다더니

売り言葉に買い言葉とはよく言ったものだ。

タイプB: ことわざを与えてその意味・用法を問う問題(12)

タイプB1: 与えられたことわざの意味を問う問題(3)

第26回1級【筆記】第28問

밑줄 친 속담 28) ‘옥도 갈아야 빛이 남’의 뜻을 나타낸 것을 ①-④에서 하나 고르시오.

- 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사소한 흠이 있으니 잘 닦아야 훌륭한 것이 된다.
- ② 훌륭한 것은 아무리 나쁘고 험한 곳에 놓여도 자기의 바탕을 잃지 아니한다.
- ③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 닦고 키우지 않으면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한다.
- ④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은 언제나 빛을 잃지 아니한다.

タイプB2: 与えられたことわざの用法が正しいかどうかを問う問題(0)

このタイプは調査資料の中には見られなかった。

タイプB3: 与えられたことわざと意味が同じことわざを問う問題(1)

第20回1級【筆記】第43問

— 本文省略 —

밑줄 친 43) ‘**평도 먹고 알도 먹는 격**’ 과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을 아래의 ①-④에서 하나만 고르시오.

- ① 일거량득 ② 어부지리 ③ 설상가상 ④ 유유사종

タイプB4: 韓国のことわざを含む文を聞かせその意味を多肢選択式に問う問題(8)
これは「韓国語能力試験」には見られない形式である。

第27回準2級【聞き取り】第5問

5) 短い文を2回ずつ読みます。各文の内容を表したものとしてもっとも適切なものを①~④の中から1つ選んでください。

2)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니까 속을 태우지 마세요.

- ① 아무 일 없어서 연락을 안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② 연락이 없는 게 걱정이니 가만히 있지 마세요.
③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마음만은 편히 가지세요.
④ 통 소식이 없었는데 이제 편지가 왔으니 안심하세요.

タイプC: 解答を得るために間接的にことわざの知識が必要である問題(15)

タイプCは、ことわざが問題とどのように係わっているかによって様々に区分できるであろうが、類型化が難しいので下位区分はしない。次の出題例には7件のことわざが含まれておりことわざを積極的に素材とした例であるが、設問はどれもそれらのことわざに関する知識を問うものではない。

第19回1級【聞き取り】第1問

1) 먼저 대화를 한 번만 들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숫자 1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숫자 2에 표시를 하십시오.

- 은주 : 속담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와 민족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속담과 우리 나라 속담은 「**티끌 모아 태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에 올라간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등과 같이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의식세계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독특한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 영철 : 물론이지. 속담이란 게 다 민중의 생활 속에서 태어났으므로 속담을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 은주 : 우리 나라 속담은 유달리 속된 표현이 많고 상스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가난하고 억눌려 살던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던 게 많았기 때문이겠죠.
- 영철 : 그리고 「**적게 먹고 가는 똥 눈다**」라는 속담에서는 체제에 순응하면서 현실을 운명이라고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던 힘없는 백성들의 생활 철학을 엿볼 수 있잖아.
- 은주 : 그렇죠. 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라는 속담은 주어진 사회적 신분을 뛰어 넘어 한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는 무용한 짓임을 못 박고 있는 것 같아요.
- 영철 : 또, 있어.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은 약자가 끝없이 겪는 수난을 나타낸 게 아닐까? 이런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위안을 받거나 위정자의 따뜻한 손길이나 사회 정의 구현을 바라기는 꿈같은 이야기였겠지?
- 은주 : 그렇지만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현재는 여러모로 어렵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살아온 거 같아요.
- 영철 : 서구의 속담이 기독교 정신에 따라 민중과 지배층이 공유하였던 것이 많은 데 비해 우리 속담은 민중들의 생활에 입각한 것이 많지.
- 은주 : 그리고 보면 우리 속담에는 현실을 타파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을 일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름없는 민중들이 권력자들에게 짓밟혀도 굴하지 않고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해 온 데 대해서는 고개가 수그러질 뿐이에요.
- 영철 : 자신보다 월등하게 강한 적수와 맞서 장렬하게 싸우는 서구의 문화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ことわざ

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 그들의 개척 정신과 모험 정신도 배울 바가 많지만 우리 동양인들이 자연과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아 가는 삶의 방식도 시사하는 바가 많지.

- 1) 일본 속담과 우리 나라 속담은 비슷한 게 참 많다. (1)
- 2) 우리 나라 속담은 상스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다. (1)
- 3) 우리 속담은 지배층과 민중이 공유한 것이 많았다. (2)
- 4) 우리 민중들은 종교로부터 위안을 많이 받았다. (2)
- 5) 우리 민중들은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해 왔다. (1)

.....

以上のように、「韓国語能力試験」にあるタイプA2, タイプA3, タイプA4, タイプB2は「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にはなく、逆に「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にしかないタイプとしてタイプA6, タイプA7, タイプB4などの出題形式があるなど、それぞれの検定試験でことわざを出題素材とするための工夫が凝らされているが、A, B, Cのタイプに大別してみれば、次のように出題タイプの分布はほぼ似通っている。

表3: 出題タイプの分布

タイプ	韓国語能力試験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タイプA	37問	42問
タイプB	11問	12問
タイプC	16問	15問
合計	64問	69問

6. 出題されたことわざの PS 度数

次に、「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にどのようなことわざが登場しているかを具体的にみよう。次の表は、出題された83件のことわざを鄭芝淑(2007)の PS リスト Ver.2006に従って PS 度数順に配列し、それぞれどの級で何回出題されたかを示したものである。PS リストはことわざの「重み」付けのリストであり、ことわざ辞典調査によって得られたものである。PS リスト Ver.2006は過去20年ほどの間に出版された28冊の韓国のことわざ辞典・ことわざ集を対象として調査し、特定のことわざを収録している辞典の数をそのことわざの PS 度数とするという方法で作成されたリストである。

表4: 出題されたことわざ

No.	ことわざ	出題回数				P S 度数
		1級	準1級	2級	準2級	
1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1				28
2	가는 날이 장날이다			2		27
3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1			27
4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1			27
5	기는 돛 위에 나는 돛 있다	1				27
6	김칫국부터 마신다	1				27
7	쟁 대신에 닭이다		1			27
8	백문이 불여일견		2			27
9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1	27
10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1				27
11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1		27
12	내 코가 석자	1				26
13	눈 가리고 아웅하다		1			26
14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1		1		26
15	티끌 모아 태산	1				26
16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1		26
17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1		25
18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1		25
19	금강산도 식후경	2		1		25
20	꼬리가 길면 밟힌다	1	1			25
21	물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1		1		25
22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1		25
23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	3				25
24	서당 개 삼년에 공월을 읊는다	1				25
25	십년 공부 나무야미타불			1		25
26	한강에서 뽕 맛고 남대문에서 눈 흘킨다		1			25
27	계 눈 감추듯	1				24
28	말은 할 탓이다	1				24
29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라		1			24
30	가물에 콩나기			1		23
31	쟁도 먹고 알도 먹는 격	1				23
32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1				23
33	병어리 냉기슴 앓듯 한다			1		23
34	산돼지를 잡으려다가 집돼지를 잃는다	1				23
35	소 귀에 경 읽기	1				23
36	시작이 반이다		1			23
37	싼 것이 비지떡		3	1		23
38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1				23
39	아닌 밤중에 홍두깨	1		1		23
40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안 믿는다		1			23
41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1			2	23
42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워라			1		22
43	마른 하늘에 날벼락			1		22
44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		22
45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1			22
46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1				22
47	적게 먹고 가는 똥 눈다	1				22
48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1		1		22
49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논다	1				21
50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1	1			21
51	웃이 날개다		1	1		21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ことわざ

No.	ことわざ	出題回数				PS 度数
		1級	準1級	2級	準2級	
52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	1				21
53	첫술에 배 부르랴			1		21
54	혹 떼려 갔다 혹 붙이고 온다			1		21
55	구관이 명관이다		1			20
56	무소식이 희소식				1	20
57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끈다	1				20
58	산에 가야 밭을 잡는다	1	1			20
59	새발의 피	1				20
60	알은 내도 깊게 건너라			1		20
61	엎드려 절 받기	1				20
62	산전 수전 다 겪는다	1				19
63	간에 기별도 안 온다	1				18
64	하룻물림이 열흘 간다			1		18
65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1	17
66	엎친 데 덮친 격	1		1		17
67	눈에 가시				1	16
68	식은 죽 먹기		1			16
69	누워서 떡 먹기			1		15
70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1				15
71	산 넘어 산	1				14
72	콩이야 팔이야 한다		1			14
73	그 아버지에 그 아들			1		13
74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1				13
75	뱀에 날개		1			12
76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1			11
77	나중에야 삼수 감산엘 가더라도	1				11
78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1			11
79	굴러 떨어진 호박이다	1				10
80	쓴맛 단맛 다 봤다	1				9
81	다 된 일에 재 뿌리다				1	6
82	옥도 갈아야 빛이 난다	1				2
83	과전불납리		1			1

これをみると、2回以上出題されていることわざは83件中15件(18%)であり、同一ことわざの重複出題を避けようとする配慮が働い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PS 度数の観点から見ると、83件中61件(73%)が度数20以上(PS リストの上位295位相当)、70件(84%)が度数15以上(上位590位相当)となっており、概ね重要なことわざが出題されていると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表には3級の出題例が省かれているが、No.41「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が3級の問題として第26回に1度だけ出題されている。

また、No.83「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はPS 度数1と極端に低いが、このような漢文成語や四字成語は「속담(俗談)」とは別範疇のものと感じられ、ことわざ辞典に収録されることは少ない。この種の定型句は今回の調査資料の中にも、例えば、上掲のタイプ B3の出題例の選択肢などのように他にいくつか見られる。敢えて No.83だけを取り上げたのは、次のようにこれが「속담」の範疇に属するものであると出題者が明記している

ためである。

第18回準1級【筆記】第1問

4) 쓸데없이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속담으로 ‘과전 ()
말이 있다.

- ① 부득이’ 라는 ② 부정관’ 이라는
③ 불납리’ 라는 ④ 불여일전’ 이라는
-

7. 出題基準のことわざリスト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では, 3級以上のレベルでことわざを出題素材とすることを明記しているばかりでなく, 第26回(2006年春)以降の準2級と2級の「レベルの目安」の一部として, それぞれ28件と91件, 合計119件のことわざリストを公表している。そのリストを, 鄭芝淑(2007)のPSリスト Ver.2006によるPS 度数を末尾に添えて, 次に掲げる。

(1) 準2級ことわざリスト(28件)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売り言葉に買い言葉) (25)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かける情あれば返す情あり) (16)
가려운 곳을 [테를] 긁어 주듯 [주다] (かゆいところに手が届く) (9)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있다] (苦勞の末に樂が来る) (20)
그림의 떡 (絵に描いたもち) (20)
꿩 먹고 알 먹는다 (먹기) (一挙兩得, 一石二鳥) (23)
누워서 떡 먹기 (朝飯前) (1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目の中へ入れても痛くない) (2)
도마에 오른 고기 (まな板の上の鯉) (20)
도토리 키 채기 (どんぐりの背比べ) (12)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石橋も叩いてみて渡れ) (25)
무소식이 희소식 (便りのないのはよい便り) (20)
물 위에 기름 (水と油) (19)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百聞は一見にしかず) (27)

범에게 날개(鬼に金棒)(12)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実るほど頭の下がる稲穂かな)(23)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雨降って地固まる)(25)
세 살 적 버릇[마음]이 여든까지 간다(三つ子の魂百まで)(24)
쇠귀에 경읽기(馬の耳に念仏)(23)
십 년이면 강산[산천]도 변한다(十年ひと昔)(20)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火のないところに煙は立たぬ)(27)
우물 안 개구리(井の中の蛙(大海を知らず))(26)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猿も木から落ちる)(24)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若いときの苦労は買ってでもせよ)(24)
티끌 모아 태산(ちりも積もれば山となる)(26)
피는 물보다 진하다(血は水よりも濃い)(4)
하나를 보고 열을 안다(一を聞いて十を知る)(27)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범도 제 소리 하면 온다(噂をすれば影)(23)

(2) 2級ことわざリスト(91件)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遠くの親類より近くの他人)(24)
가는[가던] 날이 장날(渡りに船)(27)
가는 말에 채찍질(駆ける馬にも鞭, 走り馬にも鞭)(24)
가는 토끼 잡으려다가 잡은 토끼 놓친다/산돼지를 잡으려다가 집돼지까지 잃는다/토끼 둘을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二兎を追うものは一兎をも得ず)(23)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わずかなものでも数多く積み重なると大きなものとなるということ/ちりも積もれば山となる)(24)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目くそ鼻くそを笑う)(22)
가물에 콩[씨] 나듯(珍しいことのたとえ)(23)
가재는 게 편(同じ穴の貉(むじな))(28)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子供が多い親は心配が尽きないということ)(27)
갈수록 태산(이라)(山また山)(22)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기왕이면 다홍치마(同じ値段なら良いものを選ぶ)(25)

-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한다(初心忘れるべからず) (26)
- 개밥에 도토리(のけ者) (20)
- 개천에서 용 난다(鳶(とび)が鷹を生む) (20)
- 게 눈 감추듯(食べ物を瞬く間にぺろりと平らげること) (24)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とぼっちりを受ける) (26)
-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달기](一見いい方法のようだが実は実行不可能なこと) (20)
- 공든 탑이 무너지랴(真心を込めてしたことが無駄に終わるようなことは決してない) (23)
- 귀가 보배(라)(耳学問) (15)
- 귀한 자식 매 한대 더 때린다/귀한 자식 매로 키워라(子供を育てるには厳しくしつけるべきだ) (22)
- 그 아버지에 그 아들(父伝子伝/子は親に似る) (13)
- 굶어 부스럼 (야ぶ蛇(藪を突っついて蛇を出す)) (26)
- 금강산도 식후경(花より団子) (25)
-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上には上がある) (27)
- 길고 짧은 것은 대어[재어] 보아야 안다(物事の違いは実際に比べてみないと分からない) (19)
- 김칫국부터 마신다(とらぬ狸の皮算用) (27)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全く関係のない二つの事が同時に起きたために思わぬ疑いをかけられること) (25)
- 꼬리가 길면 밟힌다(悪い行いや評判は結局知れ渡るということ) (25)
- 남의 밥에 든 콩이 굵어 보인다(隣の芝生は青い) (19)
- 남의 잔치[제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他人のことに必要以上に干渉したり, 口出しすること) (27)
-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いろはのいも知らない) (23)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 (26)
- 누워서 침 뱉기(天を仰いでつばする) (24)
-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他人を負かそうとしてやったことが, 結局は自分の首を絞めることになる) (15)
- 독 안에 든 쥐(袋のねずみ) (19)
- 등잔 밑이 어둡다(灯台下暗し) (27)

- 땅 짚고 헤엄치기 (非常にたやすいこと) (26)
- 마른 하늘에 날벼락 (青天の霹靂) (22)
- 목구멍이 포도청 (食うためには悪いこともせざるを得ない) (23)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徳の高い人のところには多くの人が寄ってくるということ) (25)
- 밧는 도끼에 밧등 찍힌다 (飼い犬に手をかまれる) (27)
- 밧 빠진 가마[독/항아리]에 물 붓기/시루에 물 퍼 붓기 (ざるに水/骨を折っても効果がないこと) (25)
-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影の形に従うがごとし) (25)
-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다 (針のむしろ) (19)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人の口に戸は立てられぬ) (26)
- 밭등에 불이 떨어지다[붙다] (尻に火がつく) (20)
-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本末転倒) (22)
- 백지장도[백지 한 장도] 맞들면 낫다 (たやすいことでも共同ですればよいたやすい) (27)
- 병어리 냉가슴 앓듯 (鳴かぬ蜚が身を焦がす) (23)
- 빈 수레가 요란하다 (中身のない人間ほど知ったかぶりをして騒ぐ) (25)
- 빛 좋은 개살구 (見かけ倒し) (25)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船頭多くして船山へ登る) (21)
- 새 발의 피 (すずめの涙) (20)
- 설마가 사람 죽인다[잡는다] (油断大敵) (17)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後の祭り) (26)
- 수박 겉 핥기 (うわべだけの浅はかな見解や行い) (23)
- 시작이 반이다 (はじめが肝心) (23)
- 식은 죽 먹기[먹듯] (たやすいことのたとえ) (16)
- 아는 길도 물어 가라[가랬다] (念には念を入れよ) (23)
-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寢耳に水) (23)
- 앞길이 구만 리 같다 (まだ若いから将来が期待される) (15)
-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 (石橋も叩いて渡れ) (20)
- 어깨 너머 글 (耳学問) (12)
- 얼어지면 코 닿을 데 (目と鼻の先) (15)

- 엎지른 물(覆水盆に返らず) (17)
- 엎친 데 덮치기[덮치다](泣きっ面に蜂) (17)
-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천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とかく人の心は知りがたいものだ) (26)
- 열 번[백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繰り返して努力すればついには成功
するものだ) (27)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いくら子供が多くても自分の子は皆可
愛いものである) (27)
-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不可能なことだったら初めから望む
な) (24)
- 옷이 날개 (라) (馬子にも衣装) (21)
-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何事でも一つのことにも励めば成功する) (28)
- 울며 겨자 먹기(泣きっ面に蜂) (22)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の者が正しくあれば下の者もそれを見習って正し
い行いをするようになる) (25)
-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추는 작아도 맵다(山椒は小粒でもびりりと辛い) (24)
- 제비는 작아도 강남 (을) 간다(体は小さくても自分の役割は十分に果たす) (20)
- 좋은 약은 입에 쓰다(良薬口に苦し) (18)
-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待てば海路の日和あり/じっくり待っていれば必ず
幸運がやってくるということ) (22)
- 지렁이도 밟으면[다치면/디디면] 꿈틀한다(一寸の虫にも五分の魂) (24)
- 첫술에 배 부르랴/한 술 밥에 배 부르랴(何事もたった一度だけで満足な結果
を得ることはできない) (21)
- 칼로 물 बे기(夫婦喧嘩は犬も食わぬ) (25)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結果には原因があるということ) (25)
- 콩으로 메주를 쑤다 하여도 콩이듣지 않는다(人の言うことをなかなか信じようと
しない) (23)
- 콩을 팔이라 해도 콩이듣는다(人の言うことを鵜呑みにすること) (23)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一を知りて二を知らず/見解が狭いこと) (24)
- 하늘의 별 따기(至難のわざ/不可能なことをすること) (19)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窮地にあっても全力を尽くしてやれば解決

策が見つかるものである) (27)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弱い者が自分の力も考えずに強敵に反抗すること) (26)

한강에 돌 던지기(のれんに腕押し/投資や努力をいくらしても甲斐のないこと) (19)

호랑이는[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虎は死して皮を残し, 人は死して名を残す) (24)

혹 떼려 갔다 혹 붙여 온다⁸ (ミイラ取りがミイラになる) (21)

PS 度数の観点からこのリストをみると, 準2級のリストでは度数20以上(PS リストの上位295位相当)のものが28件中20件(71%), 度数15以上(上位590位相当)のものが23件(82%), 2級のリストでは度数20以上が91件中74件(81%), 度数15以上が89件(98%)となっており, 過去に出題されたことわざの場合と同様「重み」のあることわざが選択されていると判断できる。PS 度数が非常に低いものもいくつかリストに含まれているが, それらは慣用的な性格が強いものとして, ことわざ辞典に収録されることが少ないことによると考えられる。検定試験においては, ことわざと慣用句とは明確に区別されてはいない。

次に, 公表されたことわざリストが第26回以降の試験でどのように活用されているかを見ることにしよう。第28回(2007年春)については問題を入手できなかったため, 第26回と第27回の問題だけを資料とする。表5に示すように, 第26回には17件, 第27回には20件ことわざが出題されている。PS 度数はやはり鄭芝淑(2007)の PS リストによるものである。

⁸ 原典では最後の部分が「붙여 온다」となっているが, これは単純な綴りの誤りであると思われる。

表5:リスト公表以降に出題されたことわざ

ことわざ	回	出題級	出題基準	PS度数
가는 날이 장날이다	26	2級	2級	27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26	2級	2級	25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	26	1級	2級	15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26	2級	2級	22
멍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	26	2級	2級	23
산돼지를 잡으려다가 집돼지를 잃는다	26	1級	2級	23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26	1級	2級	26
싼 게 비지떡이다	26	2級	—	23
아니 댐 굴뚝에 연기 날까	26	準2級	2級	27
아닌 맘중에 흥두께	26	2級	2級	23
엮힌 데 엮힌 격	26	1・2級	2級	17
옥도 같아야 빛이 난다	26	1級	—	2
웃이 날개다	26	2級	2級	21
취구멍에도 벌 들 날이 있다	26	2級	2級	11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26	3級	準2級	23
혹 떼려 갔다 혹 붙이고 온다	26	2級	2級	21
가는 날이 장날이다	27	2級	2級	27
개 눈 감추듯	27	1級	2級	24
그 아버지에 그 아들	27	2級	2級	13
금강산도 식후경	27	2級	2級	25
기는 높 위에 나는 높 있다	27	1級	2級	27
꼬리가 길면 밟힌다	27	1級	2級	25
눈에 가시 같다	27	準2級	—	16
다 된 일에 재 뿌리다	27	準2級	—	6
놀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가라	27	1級	準2級	25
마른 하늘에 날벼락	27	2級	2級	22
무소식이 희소식	27	準2級	準2級	20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27	1級	2級	20
산에 가야 뱀을 잡는다	27	1級	—	20
산전 수전 다 겪다	27	1級	—	19
쓴 맛 단 맛 다 봤다	27	1級	—	9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27	1級	2級	23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27	1級	2級	28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27	1級	—	13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27	1級	—	27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27	準2級	準2級	23

出題基準欄に級指定がないものが公表リストに含まれないことわざである。リストからの出題比率は、第26回が17件中の15件で88%、第27回が20件中の13件で65%となる。第27回の比率が低いようであるが、リスト外からの出題のほとんどが1級での出題である。1級にはリストが公表されていないので、これは「約束違反」とはならない。「違反」となるのはリスト外から準2級に出題された2件だけである。第26回の「違反」は、リスト外から2級に出題された「싼 게 비지떡이다」と、準2級リストから3級に出題された「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の2件だけである。リストを公表する以上、できるだけそれに忠実に出題するのが望ましい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が、出題の仕方によっては、必ずしもリストに

とられる必要はない。前述の問題の種類でタイプ C に分類されるものは、特定のことわざに関する知識を問うものではないので、リスト外から出題しても重大な差し支えはないであろう。そのことは、ハングル検定協会も巻末付録の中で触れている。⁹ そのことを勘案すれば、ほぼ完全に「約束通り」に出題されている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

8. おわりに

ことわざは、言語素材として尽きない興味の対象であるばかりではなく、そこには長い年月にわたって受け入れられてきた庶民の知恵や価値観が込められており、言語の背景文化を理解する上で重要な手がかりともなる。急激に進行する社会構造と意識の変化の中で伝統的な価値観が失われて行くに伴い、旧い時代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ことわざもまた、急速に色褪せその効力を発揮する場を失いつつあると感じられているが、決してそうではない。新奇なものを希求するあまり古いものに対する関心が一時的に薄れ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が、気の聞いた決まり文句を用いることで、意思疎通上の問題解決を図るという人間の習性は今も昔も変わらない。次々に造り出されて使い捨てられる流行語的決まり文句の浅薄さに飽きたとき、時間の淘汰を受けてきた伝統的なことわざの底力を再認識することになるはずである。

欧米のことわざ研究では、ことわざを「文化リテラシー」の尺度の1つとして位置付け、異文化を理解しその中で支障なく暮らすために最低限必要なことわざが何である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重要な研究テーマの1つとなっている。ロシアのことわざ学者 Permyakov が発案し、Wolfgang Mieder らによって発展されつつある「ことわざミニマム」の概念がそれである。この概念は、外国人向けのロシア語教育を発想のきっかけとして提唱されたものであり、今なお外国語教育に資することが極めて大きい。「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ことわざリストは、考えようによっては、「ことわざミニマム」選定の試みの1つと考えることもできる。ただ、問題はどのような基準によってリストが作られたかが明確でないことである。

上に述べたように、PS 度数の観点からすると、リストに含まれることわざの大部分は基本的なことわざである。その限りにおいては、どのような基準で選ばれたにしても差し支えはない。しかし、同じ程度に基本的なことわざは他にも多数ある。それらを差し置いて、明らかに度数の低いものが選ばれていることから判断すると、少数の適当なことわざ辞

⁹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編(2006b)pp.197-198を参照。

典・ことわざ集を資料として数人の選定者が基本的には直感的判断に基づき合議により選んだのではないかと推測される。結果として不都合のないリストを得るに至っているが、多数のことわざ辞典の調査に基づくPSリストVer.2007(韓国版)を資料にすれば別な結果が得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1級の出題基準では、ことわざのリストは公表されていない。将来公表する予定であるかもしれないが、その予定がないとすれば是非とも再考していただきたい。1級レベルであればリストは必要でないであろうという判断には同意しがたい。なぜなら、一般の韓国語話者が知っていることわざの数はせいぜい500件程度であると思われるが、韓国語のことわざの数はそれよりはるかに多いからである。一般向けのことわざ集の多くは1,000件～2,000件程度のことわざを見出しにしているが、そのすべてを知っている成人韓国人はほとんどないであろう。従って、出題されることわざのリストを公表しないことは、母語話者以上の知識を要求することになる。もちろん、特殊なことわざが出題されることはないであろうが、しかし、受験者にはどのことわざが基本的でどのことわざが特殊であるかの判断ができない。したがって、受験の準備をしようにも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平均的母語話者のことわざ知識量が500件程度であるとするれば、1級の出題基準として、200件～300件程度のことわざリストを作成し提示することが理に適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PS リストを利用すればその作業は大して困難なことではない。是非、一考をお願いしたい。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で実施しているように出題ことわざリストの公表することは、単に受験者の目標を明確にし負担を軽減するだけでなく、ことわざを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学習に積極的に組み込み、ことわざに関する知識を増大・普及させ、ひいては文化リテラシーを高めるための最善の方法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外国人向けの韓国語学習テキストにおいても教育素材としてことわざを組み込むための様々な工夫がなされている。しかし、学習テキストの素材としてことわざを組み込むにはかなりの時間と労力とスペースを要するから、取り上げることのできることわざの数はかなり限られる。教科書によっては補充教材としてリストの形で提示する方法を取っているものがある。そのようにすれば、ある程度まとまった数のことわざを扱うことができるけれども、それが実際に授業の中で活用されなければ何の効果もない。しかし、能力検定試験の出題範囲の一部としてことわざのリストを掲載すれば、かなりの件数のことわざを扱うことができ、しかも受験者は必ずそれを学習すると思われるので、ことわざに関する知識を普及させるためには最善の方法であると言える。「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の措置は大いに評価され

るべきである。「韓国語能力試験」には出題範囲のことわざリストが付けられていないが、同様のリストを公表することが望まれる。

参考文献

- Wolfgang Mieder(1994) *Paremiological Minimum and Cultural Literacy, Wise Words: Essays on the Proverb*. New York:Garland Publishing, pp.297-316
- 鄭 芝淑(2004) 「ことわざに関する対照研究の新しい試み」『多元文化』(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言語文化研究科国際多言文化専攻)第4号, pp.105-117
- 鄭 芝淑(2005) 「韓国語能力試験問題のことわざ」『ことばの科学』(名古屋大学言語文化研究会)第18号, pp.181-200
- 鄭 芝淑(2007) 『日本と韓国のことわざの比較研究 — ことわざスペクトルと比較ことわざ学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言語文化研究科博士学位論文)
-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編(2004) 『2004年春季第22回「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問題と正答』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5a) 『2005年春季第23回「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問題と正答』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5b) 『2005年春季第24回「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問題と正答』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5c)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過去問題集』第1巻,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6a)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合格トウミ初・中級編』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6b)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合格トウミ上級編』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6c) 『2005年秋季第25回「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問題と正答』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 (2007)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過去問題集』第2巻, ハングル能力検定協会

